

## 7 ● 강판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화증

성별	남성	나이	52세	직종	강판 제조업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### 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2년 △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이프인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, 2007년 7월부터 호흡 곤란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였고 2008년 1월 대학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가 근무하였던 △사업장의 주요공정은 파이프를 지그에 물리기 위하여 파이프 한쪽 끝을 압축하는 구부공정, 파이프를 인발기에 물려서 원재료보다 가늘고 길게 뽑아내는 인발공정, 인발된 파이프를 곧게 수정하는 교정공정, 그리고 절단 및 출하공정 등으로 구성되었다.

### 3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△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7월부터 기침과 호흡 곤란이 나타나 내과의원 및 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2008년 1월 CT 및 흉강경을 이용한 폐조직 검사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화증(조직형 UIP)을 진단받았다. FVC(forced vital capacity)는 54%, 일산화탄소 확산능(DLCO)은 70%로 측정되었다.

### 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△사업장에서 약 5년 5개월간 파이프 인발 작업을 수행하던 중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. 중금속 등 알려진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았고,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다. 따라서,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.